

“나는 감히 말한다,
이것이 신화라고”

《살아있는 우리신화》 낸 건국대 신동훈 교수



당금애기, 막막부인, 백주또, 퀘네깃또, 자청비, 감은장애기, 사마동이, 오늘이, 내일이... 오래 전에 헤어져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우리 신화의 주인공들이 살아 돌아왔다.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동훈(41) 교수의 《살아있는 우리신화》에는 '긴긴 세월 겨레의 가슴 속에 등불과 같은 희망으로 살아 숨쉬어온' 78명의 신들이 펼쳐내는 25편의 우리 신화가 펼쳐져 있다. 우리 신화는 서구 신화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동양권인 중국이나 일본의 신화와도 다르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이, 기괴함보다는 자연스러

움이, 공포감보다는 친근함이 두드러진다.

신 교수가 이번 작업에 신경쓴 것은 원본의 순수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었다. 구전된 것인 만큼 불가피하게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해설을 하는 게 필요했지만 이야기 자체를 보다 그럴듯하게 꾸미려는 욕심은 최대한 자제했다. 어떤 부분에서는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신화의 야생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다.

또한 '우리 신들의 귀환을 위하여' 라는 마지막 장에서는 복원된 우리 신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신들의 세상을 그려낸 신화지도와 신들의 계보와 역할을 정리했다. 우리 신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쓰는 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을 두고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거듭 음미하는 가운데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또한 20년간 전설이나 민담 고전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비교검토해 가면서 생긴 서사적인 직관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독자들이 우리 신화에 대한 저의 애정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서사문학을 놓고 봤을 때 판소리가 하나의 예술로서 우리의 삶을 서정적이고 서사적으로 표현한다면, 탈춤은 사회의 위선을 폭로하고 풍자하고 공격하는 갈등의 세계를 다룬다. 그에 비해 무속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신화 속 인물과 동행함으로써 사람의 가슴 속에 맺힌 답답함을 풀어내고 씻겨주는 제의적 성격이 강하다. 신 교수는 우리 신화를 한마디로 “한숨을 자아내고 가슴을 흔들고 말문을 막아버리다가 어느새 서러운 마음 그윽하게 가라앉히며 흐린 영혼을 싸하게 씻어주는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무속신화의 매력이자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라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제주도의 무녀들이 신들을 그냥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툼(서러운) 신님들' 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인데 서양신화의 경우 윤색되는 과정에서 그 특징을 잃어버린 것에 비해 우리 신화는 아직 그 원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의 신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배층은 미신이라고 아예 외면했고 몇몇을 제외하고 지식

인 문인들 역시 관심가지고 가꾼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글자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 의해 입으로 입으로 그 순수성을 간직한 채 전해져 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신화의 주인공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사의 고락을 겪어지고 헤쳐내 마침내 신으로 좌정한, 그래서 인간의 생사고락을 주재하게 된 그런 존재들이다. 인간을 뛰어넘었기에 신이 된 이들도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기에 신이 된 이들이 더 많다. 예수나 불다가 그랬듯 신성神性은 곁은 말구유 안에서, 늙고 병든이의 굵은 등에서 피어나는 것을 우리 신화는 잘 보여준다고 신 교수는 말한다.

신 교수는 우리 신화를 현대에 되살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는다. 신화는 가난하고, 못생기고, 아프고, 운이 없고... 박탈당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남을 소외시켜온 사람들도 신화를 통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 실제로 신화는 신 교수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번은 출장가는 자신을 위해 꼼꼼하게 짐을 챙기는 아내를 보면서 황우양 씨의 아내 막막부인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딸인 막막부인은 천하궁 누각 기둥을 고치라는 옥황상제의 명에 허둥대는 남편 황우양씨를 돕고 가정의 화목을 지켜내는 <성주풀이> 신화의 여주인공이다. 그런데 곰곰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정말 아내야말로 막막부인이었다. 가난한 대학원생일 때부터 아내는 그의 옆에서 정성껏 그리고 현명하게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어진 것이다.

“순간 ‘내가 막막부인과 함께 사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아내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저의 태도가 변하니까 아내도 느꼈던지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에 애한 집안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우리 신화에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어린이책이다. 전갑배 교수의 일러스트레이션作品集 《당금애기》(1998)와 《바리데기》(1999)가 있고 이어서 신 교수가 정출현 씨와 함께 기획한 ‘한겨레 옛이야기 신화편’이 있다. 전공자들의 작업실에서 벗어나 민간신화를 우리의 현재 삶 속으로 풀어내 보인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에도 김정숙의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2002), 서정오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신화》(2003)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 신화집이 나왔다. 책 이외에도 뮤지컬 <바리, 잊혀진 자장가>(1999)와 이성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오늘이>(2003)는 눈에 띄는 성과였다.

신 교수는 복원한 우리 신화를 바탕으로 신화의 배경, 전체공간의 체계, 신화지도, 각 공간의 이미지, 신들의 캐릭터 등 우리 신화를 문화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일종의 ‘원소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계가 구체화되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솔직히 욕심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화를 다룬 책을 읽고 나아가 우리 신화가 문화계의 화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반지의 제왕>처럼 세계인들이 우리 신화를 읽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감히 ‘이것이 신화다’라고 자신했듯이 우리 신화에는 북유럽의 신화 못지않은 매력이 있으니깐요.”

신 교수는 우리 신화가 가야할 길이 100미터라면 이제 겨우 두세 발짝 걸음을 떼었다고 말한다. ‘귀환’한 우리 신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

취재 신동섭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